



발명특허 일체형 마개 시장 출시

재래시장 소비자 우선 공략

특허증과 수공 샘플만 갖고 코리아팩 2008에 참가하여 대기업 및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집중된 관심을 받았던 (주)베스트이지캡(대표이사 백영자)이 지난달 일체형 마개를 양산화하고 본격 시장 진입에 나섰다.

2004년 회사 설립 후 포장용기의 중요부분인 마개만 연구, 개발해 온 베스트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일체형 마개를 개발 특허획득(제품명 하이캡))을 마치고 지난달 2단계 목표인 양산화에 성공했다.

양산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가장 애로사항은 자금이 문제였다. 페인트 유통업의 제1인자였던 그녀가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용기 마개 개발에 전념,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산마저 개발비에 투자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따랐지만 주변에선 그것을 믿지 않았다.

유통업에서 자수성가하여 비엔지니어로서 새로운 개척의 길로 나선 백사장은 특허제품 발명과 관련하여 최초 개발시점에 세계 식음료 시장에 유통되는 병마개가 스크류 방식으로 동일하다는 것에 주목, 세계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었다.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연구진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주문하였다.

기존 용기의 주입구 형태에 마개의 사양을 맞출 것, 그리고 기존 제품 원재료에 추가적인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과 마지막으로 기존 스크류 방식을 유지할 것 이었다.

이렇게 개발한 마개를 전시회에 출품, 평가를 받던 중 대기업 및 해외 바이어들의 병마개에 대한 공통된 질문은 특허제품(하이캡)이 과연 기존 자동생산라인에서도 '캡핑(Capping)'이 가능한 가였는데, 이런 과제를 보완, 기존 라인을 이용하여 캡핑 가능한 자동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존 어느 설비라도 간단한 구조변경만하면 적용할 수 있는 자동 캡핑기도 개발했다.

양산 출시에 앞서 벌써 몇몇 대기업에서는 시장 선점을 염두에 두고 독점을 요구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베스트는 대형 유저보다는 재래시장부터 접근, 직접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우고 재래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서 나온 불편함을 보완하여



▲ 특허를 획득한 일체형 마개



▲ 베스트이지캡의 일체형 마개

완벽한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메일 마케팅을 통한 중남미의 생수협회에 접촉하여 중남미 시장에 베스트 이지캡 특허제품을 소개하고 싶다고 '샘플' 요청을 받게 되었고 유럽 및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상담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주)베스트 이지캡이 양산화 시스템을 준비한 후 '재래시장'을 가장 먼저 노크한 것은 소비자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주)베스트 이지캡의 마인드(mind)이기도 하다. 재래시장은 '식혜, 콩국물, 막걸리 등'을 PET 병에 담아 바로 뚜껑을 닫아 당일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시장으로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시제품 샘플을 제시한 결과 한결같이 제품을 공급해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베스트는 대기업의 유혹을 물리치고 소비자에

게 우선 제품을 소개하고자 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자동캡핑이 필요없는 재래시장에서 양산화된 제품을 선보이는 가장 빠른 길이였기 때문이다. 또한 베스트는 박람회 5개월 만에 양산화에 필요한 자동 캡핑기를 개발하는 놀라운 기술력을 선보였다

한편 (주)베스트 이지캡의 다양한 특허제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는 '슬라이드 하이캡'으로 개폐시 기존 병마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디자인면에서도 독특함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이 제품은 스크류 방식의 제품에는 모두 적용 가능해 양주와 같은 주류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식음료용 하이캡 제품은 용기의 크기와 재질에 상관없이 어떠한 제품에도 적용 가능한 특허 제품이며 (주)베스트 이지캡의 '특허제품'은 환경보호적인 측면에서도 특징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질오염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 중 한 예로 여름 휴가철이 지난 바닷가에 가면 PET병이 많이 버려져 있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용기가 밀폐된 상태로 버려지지 않고 PET병 몸체와 마개가 따로 버려지고 있는 가운데 PET병 몸체는 쉽게 눈에 띄어 수거가 되지만, 마개는 모래 속에 파묻히게 되어 수거가 쉽지 않아 수질오염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베스트의 특허제품은 용기와 마개가 같이 수거됨으로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제품이다. 연간 수천톤의 합성수지가 PET 병마개 제조용으로 사용되며, 회수율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주)베스트 이지캡의 발명특허품은 이미 포장재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실

례로 5개월 전에 시장조사차 내놓은 용제통(신나)이 대단한 호응을 얻었으며 실제 제품 출시 2주만에 시장성을 인정받아 품질현상이 보이기도 했다.

베스트 이지캡은 자사가 개발한 전라인 무인 시스템으로 양산 체제에 들어갔는데 무인 시스템은 크기에 상관없이 1L 이상의 모든 플라스틱 통 생산에 적용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원재료비와 인건비 절감을 통하여 생산 원가 절감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와 시장점유율 향상에 있어서도 큰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에 빠지면 외골수로 몰두하는 백영자 사장의 장인정신이 만들어 낸 분리되지 않는 뚜껑이 용기에 적용돼 환경문제의 해결은 물론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날이 눈앞에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